

종합 / 패키지

국제기능올림픽 '제과부문' 예선전 개최

11월 30일부터 3일간, 79년 이후 출생자 대상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제과 제빵이 정식 종목(직종 번호 32)으로 확정됨에 따라 출전 선수 선발을 위해 국내 예선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기능장협회와 협의를 갖고 만14세 이상 22세 미만(1979년 이후 출생자)의 기능인을 대상으로 국내 예선전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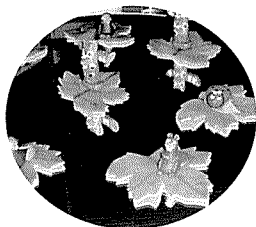
예선전은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내 기능올림픽 조직

위원회 기능경기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계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999년 몬트리올 경기(당시는 시범 종목)를 기준으로 실기과제를 출제한다.(사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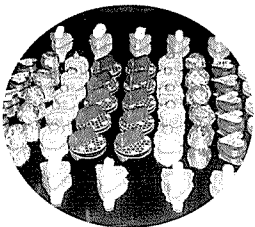
한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제과제빵 종목은 내년 9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대서양관(3,136㎡)에서 컴퓨터 통신, 그래픽디자인, 레스토랑서비스 등 17개 직종과 함께 실시된다(관련 기사 158쪽).

▲ 예선전 문의 : 기능경기부(02)3271-9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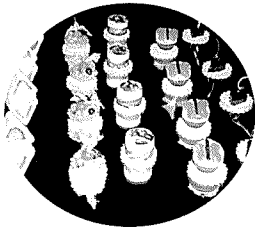
〈홍성대 / sdhong@mbakery.co.kr〉



▲ 마지팬 47지 다른 모양



▲ 초컬릿 제품 67지 다른모양, 67지 다른 제품



▲ 프티푸르 제품 67지 다른모양, 67지 다른 제품

cake.co.kr)로 온라인 주문도 받고 있으며 향후 가맹점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문의 : (02) 554-9798

〈강인옥 / inok@mbakery.co.kr〉

행정처분 점포 추가 교육

3개월내 4시간 교육 받아야

기존 업주 교육이 폐지되는 반면 행정 처분을 받은 제과점은 추가 교육을 받게 됐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3년마다 실시하던 기존 업주 위생 교육이 삭제됨에 따라 제과점들은 앞으로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영업 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제과점은 행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제과협회에서 실시하는 신규 업주 위생 교육시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종선 / sunpark@mbakery.co.kr〉

삼성상사, 일본 포장용품 수입

'시모지마' 한국 총판매원에 지정

삼성상사(대표 이재근)가 11월부터 일본의 대표적인 포장 업체인 '시모지마'사의 포장 패키지를 수입해 판매한다.

삼성상사는 최근 일본 시모지마사와 국내 총판매원 계약을 체결해 포장지, 박스 등 패키지 일체를 판매하고, 국내 업체의 패키지 도용 방지 등 시모지마사 제품의 디자인 국내 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한편 국내 제과인들에게 시모지마 상가로 많이 알려진 시모지마사는 전국에 250여개 매장과 '헤이꼬'란 유명 브랜드를 갖춘 일본의 대표적인 포장 용품 업체이다.

〈박종선 / sunpark@mbakery.co.kr〉

캐릭터케이크 전문점 '안드레이'

미국 크래프트와 독점 계약

'안드레이 케이크와 파티'(대표 김경혜)가 10월 대치동에 본점을 오픈했다.

미국의 베이커리 크래프트(Bakery Crafts)와 독점 계약권을 맺은 '안드레이'는 100여가지의 다양한 캐릭터 케이크와 데커레이션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

고 있다.

김경혜 사장은 "FDA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50여가지 식용 색소를 사용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크 주문 판매뿐 아니라 각종 파티, 이벤트 디스플레이와 진행 요원 공급도 패키지로 마련해 놓고 있는 이 업체는 인터넷 사이트(www.andrea-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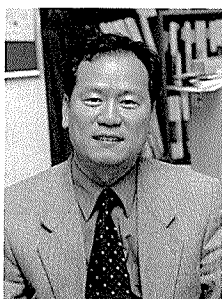
대한민국 '제과 명장' 제1호 탄생

박찬회사, 제과 기술인 최고 영예 안아

대한민국 제과 명장이 처음 탄생했다. 10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0년 대한민국 명장 34명에 박찬회씨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명장은 한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40세 이상의 기능인 중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개발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능인 최고의 영예이다.

“최고 기능인의 영예라는 명장에 선정돼 무척 기쁘다. 35년간 제과업에 종사한 보람을 느낀다. 사실 업계 원로들이나 훌륭한 선배 기술인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큰 영예를 안게 돼 송구스럽기도 하고 명장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업계의 많은 분들이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과 분야의 일이 힘들다고 꺼려하는데 진정한 장인은 끈기와 참을성 없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박찬회(박찬회 화과자·브리앙과자점 대표)

싶다. 기술 터득의 과정은 어렵고 고되어도 이를 이겨내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면 꼭 모두가 인정하는 제과기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수한 제과인들이 명장으로 많이 배출돼 제과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고 후배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강인옥 / inok@mbakery.co.kr〉

쉬폰케이크, 타르트 등의 주력 제품 외에 커피와 음료를 결합한 정통 프랑스 빵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 점포는 동일 상권 내의 꽃집, 미장원, 화장품점과 제휴해 공동 마일리지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한상 / jeong@mbakery.co.kr〉

동아식품, 앙금 공장 증축 시설 확장·품질 향상 계기

동아식품(대표 문현주)이 10월 28일 공장 증축식과 함께 자사 앙금을 이용한 제품 시식 및 초청 강연을 가졌다.

동아식품은 2층 300평 규모의 공장 증축과 첨단 생산 설비 보강으로 생산량이 확대됐고 앙금의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동아식품은 공장 증축을 계기로 대학 연구소와 제휴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꾀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비자에게 앙금을 이용한 제품 제조법 안내 등으로 시장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선 / sunpark@mbakery.co.kr〉

예림기획, 중국 시장 진출

11월 중 하얼빈에 '청와대' 오픈

인테리어·컨설팅업체인 예림기획(대표 강영구)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 업체는 자오국제통상(대표 자오즈민)과 제휴해 11월 중 하얼빈 중심가의 신쥬림백화점 지하 매장에 40평 규모로 제과점 '청와대'를 오픈할 예정이다. 예림기획은 식빵, 케이크, 단과자류 등 40여 품목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이 업체 강영구 사장은 “중국에도 베이커리 제품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중국 베이커리시장 선점을 위해 진출하게 됐다”고 밝히며 “국내 제조 스타일을 기본으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맛

을 가미해 제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림기획은 ‘청와대’ 1호점을 발판으로 사업이 안정화하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고급 백화점 입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인옥 / inok@mbakery.co.kr〉

신라명과, 새브랜드 ‘라비두스’

프랑스풍 케이크전문점 운영

신라명과(www.shillabakery.com)가 10월 24일 강남구 압구정동에 새 브랜드인 케이크 전문점 라비두스(LA VIE DOUCE)를 오픈했다.

라비두스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뜻으로 18평 규모의 매장에 무스케이크,

맛나라제과제빵학원 개원

전문인·자격증·취미반 운영

부산 사상구 패법동에 맛나라제과제빵학원(원장 박성금)이 개원했다.

이번에 개원한 이 학원은 패법동 분원으로 99년 최연소로 제과기능장 시험에 합격한 박배철씨가 대표강사로, 정규 4년제 식품공학과출신들이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전문인반과 자격증반이 개설돼 있으며 그 외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증반은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평생회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형석 / ohs@mbakery.co.kr〉

재료 / 기타

‘수능 특수경기’ 지난해와 비슷할 듯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및 다양화 특징

올 11월 15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선보이고 있다.

올 수능경기는 전체적인 국내 불경기에 의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특수와 달리 경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에 급격한 매출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신라명과는 기존의 장원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사화와 합격 붓 등을 추가시켰다. 이 업체는 옛, 초컬릿, 찹쌀떡으로 구성된 대, 중, 소 세트를 지난해보다 2,000원 정도 높게 책정했다. 파리크

라상도 기존 컨셉인 합격기원 세트의 디자인과 질감을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바꾸고 합격 기원 서적, 문, 보따리 등 합격기원 컬렉션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들 업체의 수능 상품은 펜시와 편의점 등의 저가품과 차별화시켜 주고객층을 30~40대로 잡았다. 5,000원 이하의 단품이 4가지인 반면 1만 3,000원 제품이 5가지로 최고가 상품도 지난해보다 2,000원 높은 1만 7,000원에 출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수능 상품 경향은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대의 제품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한상 / jeong@mbakery.co.kr〉

내 및 수입 업체와 연결시켜 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는 중계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0여군데의 재료상을 체인점으로 가입시켰으며, 마가린 품목의 경우 이 업체의 품질, 생산 관리에 의해 OEM 생산한 독자 브랜드의 제품을 회원 업체에 공급 중이다.

이 업체는 B2C 마케팅을 위해 앞으로 회원 재료상이 거래하는 2~3개 제품점을 중점 관리 업소로 지정해 기술인 교육, 경영 및 제품 지도, 시장 조사, 인테리어 등 점포 경영 전반에 대해 도움을 주는 컨설팅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032)555-0327

〈박종선 / sunpark@mbakery.co.kr〉

삼립웰가, 제품 디자인 개선 주력 품목 고품질 이미지 반영



(주)삼립웰가(구 삼립유지)가 마가린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6개 주력 제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했다.

대표 상품인 ‘버터랜드’와 ‘엘리트마가린’은 고품질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자연을 연상시키는 초원 풍경으로 디자인했으며, ‘로얄버터린’, ‘에스파이’, ‘홈버터린’, ‘몽블랑에이스’는 새로운 상호인 웰가와 조화를 이루도록 심플하고 통일된 이미지와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색상으로 변경했다.

〈박종선 / sunpark@mbakery.co.kr〉

캘리포니아호두협회 리셉션 국내 마케팅 활동 계획 발표



캘리포니아호두협회 한국 사무소(대표 손란)는 10월 1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캘리포니아 호두 2000/2001년 시즌 출하를 기념하는 리셉션을 열었다.

이번 리셉션에서는 호두협회 본부 마케팅 이사 수잔 헤이니(Susan Haenny) 씨가 캘리포니아 호두 산업의 근황과 한국에서의 2000/2001년 마케팅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호두협회는 호두제품 경연대회, 기술 세미나, 판촉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소비량을 증가시킬 방침이다. 〈강인옥 / inok@mbakery.co.kr〉

토탈 컨설팅 업체 ‘한국니치’ 탄생 재료상 제품 중계 · 점포 컨설팅 담당



한국니치마케팅(대표 차성덕)이 제과점 토탈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니치’는 B2B 마케팅 일환으로 재료상과 외식 식자재 취급처를 회원이나 주주 형태로 모집해 체인화하고, 국

학원 / 기타

제과학교, 경영혁신과정 개강

제2기는 11월 6일부터 40명 선착순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교장 홍행홍)가 10월 9일 1인 제과점 경영혁신과정을 개강했다.

이 과정은 냉동생지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여 1인당 생산성과 매출 향상을 위해 개설됐다. 제과학교 홍행홍 교장은 “점포주가 직접 제품 생산에 참여하고 이웃

소싱을 통해 고품질의 전문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절약, 소규모 제과점의 경영난을 극복하는 게 이 과정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경영혁신과정은 냉동생지를 이용한 80여 품목의 빵류 제조법과 생크림 케이크 아이싱, 데커레이션기법 등을 4주간 교육한다.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는 냉동생지·케이크 제조 업체 등과 협력해 이 과정 수료생과 직접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2기 과정은 11월 6일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문의 : 02) 843-6110

<강인옥 / inok@mbakery.co.kr>

제과 제빵 자격증 교부처 확대 본부·지방사무소 어디서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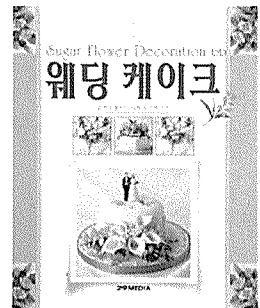
제과제빵 자격증 교부장소가 확대됐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기시험원서를 접수한 지역본부 또는 지방사무소에서만 자격증을 교부하던 것을 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어디서나 교부하기로 한 것.

단, 실기시험 중 신분증 미 지참자로 시험종료 후 수검원서 접수기관에서 신분을 미확인한 자는 종전처럼 수검원서 접수처에서만 자격증을 교부한다.

<강인옥 / inok@mbakery.co.kr>

웨딩케이크 단행본 출간 슈가플라워를 중심으로 기업소개



영국에 유학해 8년간 웨딩케이크 디자인을 연구한 박은주씨가 슈가 플라워를 중점적으로 수록한 '웨딩케이크'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 책은 케이크를 장식하는 꽃만들기와 케이크 옆면 장식 기법, 화분과 장식 소품 만들기 등 케이크 데커레이션 테크닉을 다루고 있다. 칼라판 180여쪽 분량에 정가는 2만 5,000원이며, 대형서점이나 발행처인 <29미디어>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문의: 02)512-1029

<정현상 jeong@mbakery.co.kr>

제4회 빵굽터 체육대회 개최 가맹점간의 친목과 화합 다져



제4회 빵굽터(대표 김서중) 가족체육대회가 지난 10월 22일 한강시민체육공원 이촌지구에서 개최됐다.

빵굽터 가맹점 업주, 기술인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족구, 배구, 줄다리기 시합이 펼쳐져 회원 가맹점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강인옥 / inok@mbakery.co.kr>

'빵굽는사람들' 5주년 이벤트 하이박동우회 참가 무료 시식



속초 빵굽는 사람들(대표 이재삼)이 10월 19일 개업 5주년 이벤트를 가졌다.

이날 이벤트 행사는 고객 사은 잔치와 함께 하이박동우회 회원이 제조한 츄러스, 야채 페이스트리, 빼빼로 스틱 등 10여 가지의 제품으로 무료 시식 행사를 실시해 성황을 이루었다.

<박현희 / hyunhee@mbakery.co.kr>

협회소식

대한제과협회 전국지회(부)장회의 개최 업계 당면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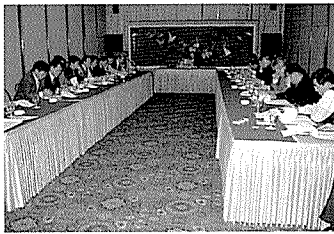


대한제과협회 전국지회(부)장회의가 10월 26일부터 이틀간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협회 권상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들간의 일정 동안 업계 주요 현

안에 대한 깊은 숙의를 통해 좋은 의견을 도출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금년 중 실시된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제일제당 뚜레쥬르건 등 협회의 당면 사항에 대한 지회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제과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 제일제당 가입 및 규제 완화 의결



대한제과협회는 10월 23일 캐피탈호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과 함께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실시에 따른 내용을 토의했다.

또 이사회는 뚜레쥬르의 진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난 2월 제일제당과의 합의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뚜레쥬르’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퇴직자에 대한 점포 개설은 허용하되 제일제당과의 세부적 합의안 수정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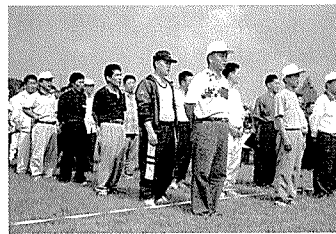
인천지회, 제과인 가족 체육대회 가족도 참여한 다양한 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유헌식)는 10월 1일 송의동 종합경기장에서 제과인과 가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제과인 가족 체

육대회를 열고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리듬체조, OX 게임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서구지부가 우승, 계양구와 남동구지부가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지회, 과업인 체육대회 회원간 친목과 단합 굳게 다져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김용관)는 10월 1일 OB맥주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과업인의 날 추계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청팀(동구, 북구)과 백팀(서구, 남구, 광산구)으로 나누어 축구, 배구, 족구, 이어달리기 경기를 실시한 이날 체육대회의 종합 우승은 백팀이 차지했다.

부산지회, 기술인 모임 행사 주관 지역 4개 모임 친선 체육대회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이하두)는 10월 4일 기술인 모임인 하나회·석화회·칠공회·일심회가 공동 주최한 친선체육대회를 주관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4개 모임 회원들은 축구, 럭비 경기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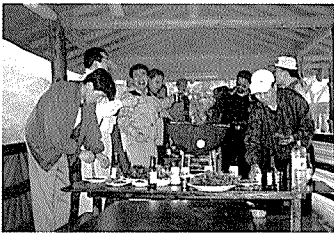
관악지회, 관악산 등산대회 실시 구청장 및 지회 임원진 30명 참석



관악지회(지회장 김용철)는 10월 10일 관악산에서 관악구청장과 지회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한 추계 등산대회를 갖고 유관 기관과의 유대와 지회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성북지회, 추계 단합대회 실시

친목 통해 지회 발전 모색



성북지회(지회장 우상춘)는 10월 24일 회원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성북지회는 친목을 통해 지회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전주시지부, 이웃사랑 활발히 전개

독거 노인에 생일상 차려주기 펼쳐

전주시지부(지부장 강대운)이 이웃 사랑을 실천, 미담 사례가 되고 있다. 전주시청과 함께 생일상 차려주기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전주시지부 회원은 지금까지 100회 가량 독거 노인에게 케이크를 제공해 왔으며 이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안양지부, 회원 대상 세미나 개최

세무·경영·기술 3개 부분 실시



안양지부(지부장 이호식)는 10월 12일 세무·경영·기술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양지부는 세무 상식과 점포 경영 강연을 실시하고 (주)오뚜기의 지원으로 냉동 생지 이용 제품을 선보였다.

논산지부, 새지부장에 한만학씨

경기 총회 실시, 임원진도 구성



논산지지부는 10월 3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한만학씨를 새 지부장에 선출했다.

▲부지부장: 구민서(독일제과) ▲총무: 소호영(이팔리앙) ▲재무: 박우영(박우경제과)
▲이사: 이용철(가나안제과), 허성영(뉴월드 베이커리), 황이숙(새풍년제과), 박근태(오드메리), 주만섭(장글제과), 고중열(풍년제과), 손경운(빵굽는 큰마을), 고용오(케익하우스), 황봉선(태극당), 이종익(동홍제과), 김기중(코러스베이커리)

안산지부, 추계 체육대회 실시

축구·족구·노래자랑 친목 다져



안산지지부(지부장 홍순찬)는 9월 26일 광덕체육공원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체육대회를 열고 동서 양팀으로 나눠 축구·족구·노래 자랑을 실시했다.

수원지부 소식

수원지부, 경영 세미나 개최



수원지지부(지부장 조계중)는 10월 16일 한국제과 고등기술학교의 홍행홍 교장을 초청해 '제과 산업과 21세기 제과점 경영' 이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안강운지회장 점포 재단장

오픈 행사 및 무료 시식 실시

울산광역시지회 안강운지회장이 10월 17일 고려당베이커리를 재단장했다. 고려당베이커리는 나레이터 모델과 각설이패를 동원해 오픈 행사와 고객 사은 행사를 실시했다.

정선에서 추계 아우회 실시

수원지부는 10월 18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정선에서 추계 아우회를 실시하고 회원의 친목을 다지고 이를 계기로 지부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협회 소식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